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

임 인 혜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369쌍(아내 369명, 남편 36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 일-가정 갈등, 결혼만족에 대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기반으로 세 가지 스트레스 대처 전략 각각의 조절효과를 일→가정, 가정→일 갈등의 방향을 구분하여 6개의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중심대처에서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의 문제중심대처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본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편 자신이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추구에서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아내가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추구가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긍정화 대처의 경우에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아내가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가정→일 갈등에서도 아내가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맞벌이 부부, 일-가정 갈등, 스트레스 대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조절효과

*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1362).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포스코관 연구동 605호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46.3%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수록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데,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의 64.9%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9)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우리사회에 주어진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60대 이후에 비해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3,40대 초반에 현저히 높은 것(이주일, 유경, 2010; Grzywacz & Marks, 2000)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삶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양트랙을 모래주머니를 달고 전력 질주하듯이(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일-가정 양립 경험은 궁극적으로 일과 육아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워킹맘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일과 돌봄이라는 관계적 욕구 간의 긴장으로 나타나며 그 안에서 남편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임지숙, 손은영, 2016). 남편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서 주어진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다중역할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맞벌이 남성들은 부성적 돌봄의 부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개인적 욕구와 주어진 역할 기대간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채화영, 이기영, 2013).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측면은 일-가정 양립의 파트너인 남편의 협력에 대한 기대

와 아내와의 역할분담 전략으로(박은선 외 2016; 유성경 외, 2016) 그들은 한 배를 탄 파트너로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가정 양립이라는 거대한 과도를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자신과 배우자와의 관계 맥락 안에서 상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비슷해 보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연단과 성숙의 계기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남기기도 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주는 조건들 뿐 아니라 개인이 삶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봐야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스를 부정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트레스의 존재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다루어나갈지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대처를 개인의 성향으로 간주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으로만 보았으나(Bolger, Schilling, 1991; Rantanen, Mauno, Kinnunen, & Rantanen, 2011), 최근의 스트레스 대처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하며,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transactional process)에 중점을 두는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은 자극의 스트레스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환경을 해석하고 환경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해석하는 방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적응사이에 개인차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처 과정을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구분은 Lazarus와 Folkman(1984)이 제안한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구분이다. 문제중심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문제 상황 자체를 바꾸려는 방략들로 계획 세우기, 정보 얻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명확한 행동전략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정서중심대처는 문제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다양한 방략들로 정서를 표출하기, 문제를 받아들이기, 긍정적인 재해석, 반추, 이완, 소망적 사고 등을 포함하는 내적 욕구와 갈등을 다루려는 대처 방략들이다. 그런데 긍정적 재평가를 비롯하여 수용하기, 계획하기 등은 적응지표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과국화 등의 정서조절 방략들은 우울을 비롯한 부적응 지표와 관련되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처럼 정서중심대처 안에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략들과 불쾌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조절 방략들이 포함되어 있어(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중심대처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한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완충 역할을 하는(Cohen & Wills, 1985) 중요한 대처방략임에도 문제중심이나 정서중심 대처의 대부분류에서 명확히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Folkman & Lazarus, 1985)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 추구를 별도의 차원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Amirkan, 1990; Carver & Scheier, 1989). 이에 따라 대처 연구자들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문제중심과 정서중심이라는 대처의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처 양식을 추가하고 보완하면서 대처의 차원과 각 차원의 상대적 효과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Aldwin & Revenson, 1987; Armirkan, 1990; Carver & Scheier, 1990; Parkinson & Totterdell, 1990).

한편 일-가정 양립 맥락에서 스트레스 연구는 역할이론에 근거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인에게 다중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 가운데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일과 가정의 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시간적 제한, 역기능적 행동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Powell & Greenhaus, 2006). 일-가정 갈등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감, 이직의도와 관련되며, 직무만족,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과 결혼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신희, 양은주, 2012; Frone, Russell, & Cooper, 1992; Ganginis Del Pino, 2011; Higgins, Duxbury, & Irving, 1992).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스트레스의 발생 경로에 따라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되며, 이 둘은 서로 높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개념으로(Amstad, Meier, Fasel, Elfering, & Semmer, 2011) 일→가정 갈등은 직무만족, 업무 참여도와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가정→일 갈등은 결혼만족이나 양육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Kinnunen, Feldt, Geurts, & Pulkkinen, 2006; Kinnunen & Mauno, 1998).

일-가정 양립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인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이 확인되면서, 일-가정 갈등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대처전략은 일-가정 갈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Ginginis DelPino, 2011), 스트레스원과 일-가정 갈등을 매개하는 역할(Pearlin & Schooler, 1978) 혹은 일-가정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갈등, 스트레스와 일의 만족, 가정 만족, 결혼의 질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one & Worthington Jr., 2001; Voydanoff, 2002).

일-가정 양립 맥락에서 대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는 정서중심대처보다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켰고(Wiersma, 1994) 삶의 만족도나 관계만족도, 낮은 우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inginis, 2011). 그러나 문제중심대처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이주일, 2003; Byron, 2005; Heraty, Morley, Cleveland, Rotondo, & Kincaid, 2008)와 가족 관련 갈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Lapierre & Allen, 2006)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대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갈등의 방향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떠한 대처가 일-가정 갈등을 줄여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Baltes & Heydens-Gahir, 2003; Rotondo, Carlson, & Kincaid, 2003), 일-가정 양립상황에서 대처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처가 일-가정 갈등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대처는 변화가능

한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거나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Aryee, Luk, Leung, & Lo., 1999;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Folkman & Moskowitz, 2004; Penley, Tomaka, & Wiebe, 2002). 반면, 정서중심대처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의 부적응적인 대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개인의 삶의 질, 건강, 직무수행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Brown, Westbrook & Challagalla, 2005; Day & Livingstone, 2001; Fortes-Ferreira, Peiro, Gonzalez Morales, & Marti'n, 2006; Haar, 2006; Rantanen, et al., 2011). 그러나 인지적 재구성이나 같은 적응적인 정서중심대처는 과중된 역할과 역할 갈등이 신체적 증상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den & Buehler, 1995).

지금까지 살펴본 일-가정 양립 맥락에서 대처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대처를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대처로 이원화하여 비교하거나(Andreassi, 2011; Folkman & Moskowitz, 2004; Heraty et al., 2008; Penley et al., 2002; Rantanen et al., 2011), 연구자들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Higgins et al., 2010; Mauno, Kinnunen, Rantanen, Feldt, & Rantanen, 2012; Nielsen & Knardahl, 2014; Paden & Buehler, 1995; Somech & Drach-Zahavy, 2007). 대처 연구자들에 의해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다양한 차원과 그 효과성이 검토되었음을 상기해볼 때 두 가지 대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일-가정 양립 맥락에 특수한 척도를 사용

하는 방식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나 본 연구의 목적인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대처의 역할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비교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략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를 중심으로 대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들의 스트레스 대처나 일-가정 양립 전략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들의 경우 구조적 역할의 재정립, 자녀 양육 및 교육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은 문제중심대처와 주변과 함께 대처, 관계맺기 전략과 같은 사회적 지지추구, 인지적 재구조화, 긍정적 사고와 같은 긍정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우영지, 이기학 2016; 유성경 외, 2016), 남성들의 경우 아내와 역할분담 전략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문제중심대처와 배우자나 친인척, 직장에서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외, 2016; 채화영, 이기영, 2013). 즉,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의 세 가지 대처는 일-가정 양립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 전략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어왔기에 세 가지 대처 양식을 중심으로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대처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내나 남편 일방을 중심으로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역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의 주체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맺고 있는 관계 맥락 안에서 일-가정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가족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부부 쌍을 분석의 단위로 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기반으로 대처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처 연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대처 방략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일-가정 양립 맥락에 자주 논의되고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세 가지 대처 전략인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를 중심으로 세 가지 대처 각각이 맞벌이 부부들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중심대처는 일-가정 갈등,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개인에게 보호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통제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중심대처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Conway & Terry, 1992; Paden & Buehler, 1995)에 따라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와 상대방의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에 대한 지각이 대처의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에(Aboim, 2007; Crespi & Fontaine, 2012) 남편보다는 아내가 본인의 가정→일 갈등에 대한 통제감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아내가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는 일-가정 갈등이 탈진이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은희, 최태산, 임은정, 2000; 이주희, 이은희, 2000) 아내가 일-가정 갈등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 문제중심대처는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아내는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보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더 적응적일 수 있을 것이다. Versey(2015)의 연구에서도 일로 인해 가정에서 겪는 갈등이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황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완화해주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화 대처 역시 부부에게 보호자원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추구가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화가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406쌍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역할 요구가 높아 워킹맘들이 일-가정 갈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삼성경제연구소, 2010; 양소남, 신창식, 2011; 최경환, 2016) 자녀 나이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부부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이므로 수집된 자료 가운데 조사 기간 중 아내 혹은 남편이 육아휴직중이라고 응답한 37쌍을 제외하고 369쌍(아내 369명, 남편 36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남녀의 평균 연령은 아내는 34.79세(SD=3.24), 남편은 36.86세(SD=3.60)이었으며, 부부의 결혼기간 평균은 5.35년(SD=2.45)이었다. 자녀는 1명~3명 사이였으며, 어린 자녀의 나이는 0세~만 6세 이하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아내는 7.69시간(SD=1.73), 남편은 8.89시간(SD=1.46)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희(1995)가 김정희 등(1987)과 Amirkhan(1990), Carver, Scheier와 Weintraub(1989), 전경구, 조신웅, 김교현(1992)의 자료를 종합하여 선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희(1995)는 82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구성된 척도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의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았던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중심대처에는 '문제의 해결책

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쓴다’를 포함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를 포함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긍정화의 경우 ‘가능하면 모든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마음먹는다’, ‘문제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응답하도록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김정희(199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문제중심대처 .91, 사회적 지지추구 .88 긍정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각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아내의 문제중심대처 .82, 남편은 .81이었으며,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 .85, 남편은 .86이며, 긍정화의 내적합치도는 아내는 .88, 남편은 .86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

Carlson 외(2000)가 개발한 일-가정 갈등 척도(Work-Family Conflict; WFC)를 김수정(201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갈등이 일과 가정의 어느 영역에서 유발되는지에 따라 일이 가정을 방해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인 일→가정 갈등과 가정이 일을 방해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인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되며 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동의하지 않음~매우 동의함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일→가정 방향의 갈등은 아내 .86, 남편 .89, 이었으며, 가정→일 방향의 갈등은 아내

.86, 남편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의 내적합치도는 아내 .88, 남편은 .88이었으며, 가정→일 갈등의 경우 아내는 .89, 남편은 .90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만족도

Norton(1983)이 개발한 결혼 만족도(Quality Marriage Index; QMI)를 장춘미(200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QMI는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지표로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번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7점 척도이고,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6번째 문항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장춘미(2009)의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남편 .96, 아내 .9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 .97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사용된 척도들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변인의 정규성과 이상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대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고, 세 요인에 대한 집중 및 관별 타당도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

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Kenny & Cook, 2006)을 기반으로 세 가지 대처(문제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APIM을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각에 대해 2개씩 총 4개의 상호작용항이 생기며, 두 구성원에 대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8개의 경로가 가능하다. 즉, 아내의 결혼 만족에 미치는 경로는 아내의 일-가정 갈등과 아내의 대처, 아내의 일-가정 갈등과 남편의 대처, 남편의 일-가정 갈등과 아내의 대처, 남편의 일-가정 갈등과 남편의 대처에 대한 4개의 경로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호작용항의 경로도 동일하게 4개로 총 8개의 경로가 가능하다. 짝자료를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선택하여 모형을 간명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나(Garcia, Kenny, & Ledermann., 2015)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대처 각각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항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자유도가 0인 포화모형으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적합도에 대한 분석과 보고는 생략하였으며 개별 모수 추정치를 통해 세 가지 대처 모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대처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조절효과와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의 평균 상하위 1표준편차 값을 중심으로 독립변수인 일-가정 갈등과 종속변수인 결혼만족에 대한 두 개의 회귀식을 평면에 그리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스트레스 대처 척도의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199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는 $CFI=.966$, $TLI=.959$, $RMSEA=.043$ 으로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요인에 대한 집중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개념 신뢰도(CR) 값을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의 경우 AVE는 .5이상 이거나 CR이 .7이상 일 때 집중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본다(Kline, 2011). 본 척도에서는 각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66~.85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AVE=.518~.629, CR=.810~.871로 나타나 양호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판별타당도의 경우 해당 요인의 AVE가 해당 요인과 다른 요인간 상관의 제곱보다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확인 결과 세 요인간 상관은 .40~.59였고, 상관의 제곱은 .16~.34로 각 요인의 AVE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세 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처 척도와 관련된 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 일-가정 향상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문제중심대처와 -.38, 사회적 지지추구와 -.18, 긍정화와 -.57의

상관을 보여 스트레스 대처의 세 개의 하위 요인은 서로 관련되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가정 향상과 문제중심대처는 .34, 사회적 지지추구는 .26, 긍정화는 .42의 상관을 보여 세 가지 스트레스 대처가 일-가정 향상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을 확인하고자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 분석 결과, 아내의 경우 문제중심대처와 긍정화의 경우 자신과 남편의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추구는 자신의 가정→일 갈등과 남편의 일→가정 갈등의 경우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은 모두 아내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아내(N=369)						남편(N=369)					
	WFC	FWC	COP1	COP2	COP3	MAR	HWFC	HFWC	HCOP1	HCOP2	HCOP3	HMAR
아내	1											
WFC	1											
FWC	.73**	1										
COP1	-.17**	-.25**	1									
COP2	-.09	-.14**	.39**	1								
COP3	-.32**	-.38**	.47**	.33**	1							
MAR	-.22**	-.35**	.31**	.18**	.40**	1						
남편							1					
HWFC	.24**	.24**	-.12*	-.12*	-.12*	-.25**	1					
HFWC	.26**	.38**	-.16**	-.09	-.25**	-.30**	.63**	1				
HCOP1	-.06	-.10	.15**	.17**	.14**	.28**	-.23**	-.17**	1			
HCOP2	-.05	-.05	.14**	.23**	.10	.22**	-.15**	-.08	.50**	1		
HCOP3	-.06	-.11*	.22**	.19**	.11*	.26**	-.32**	-.30**	.51**	.41**	1	
HMAR	-.19**	-.30**	.19**	.20**	.29**	.64**	-.24**	-.38**	.34**	.23**	.35**	1
평균	3.08	2.65	2.84	2.69	2.65	5.67	3.00	2.53	2.81	2.51	2.76	6.02
표준편차	.75	.75	0.62	0.69	0.71	1.40	.79	.77	0.60	0.69	0.66	1.30
왜도	-.39	.09	-.16	-.05	.15	-1.07	-.21	.41	.01	.10	-.15	-1.13
첨도	.10	-.36	-.32	-.62	-.66	.82	-.19	.20	-.49	-.41	-.33	.94

* p<.05, **p<.01

WFC:아내의 일→가정 갈등, FWC: 아내의 가정→일 갈등, COP1:아내의 문제중심대처, COP2: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 COP3:아내의 긍정화, MAR:아내의 결혼만족, HWFC:남편의 일→가정 갈등, HFWC: 남편의 가정→일 갈등 HCOP1:남편의 문제중심대처, HCOP2:남편의 사회적 지지추구, HCOP3:남편의 긍정화, HMAR:남편의 결혼만족

아내의 세 가지 대처 양식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경우에는 문제중심대처, 긍정화는 본인의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추구의 경우 자신의 일→가정 갈등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남편의 대처는 자신의 일-가정 갈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만 아내의 일-가정 갈등과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세 가지 대처는 본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의 자기-상대방효과에 대한 기저모형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아내와 남편의 일→가정, 가정→일 갈등이 본인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저모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갈등

의 경우, 아내의 일→가정 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317, p < .01$)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beta = -.238, p < .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일→가정 갈등이 심할수록 본인과 남편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일→가정 갈등 역시 본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337, p < .01$)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beta = -.376, p < .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심할수록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에서 일 방향의 갈등의 경우, 아내의 가정→일 갈등은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beta = -.525, p < .01$)과 남편의 결혼만족($\beta = -.308, p < .01$)에 모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정→일 갈등 역시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525, p < .01$)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beta = -.345, p < .01$)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내와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심할

표 2.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N=369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아내 WFC→아내결혼만족	-.317**	.096	-.169
남편 WFC→아내결혼만족	-.376***	.091	-.210
아내 WFC→남편결혼만족	-.238**	.090	-.137
남편 WFC→남편결혼만족	-.337***	.085	-.203
아내 FWC→아내결혼만족	-.525***	.096	-.282
남편 FWC→아내결혼만족	-.345***	.095	-.189
아내 FWC→남편결혼만족	-.308***	.089	-.179
남편 FWC→남편결혼만족	-.525***	.087	-.310

** $p < .01$, *** $p < .001$

수록 본인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처의 조절효과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의 세 가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 모형을 일→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갈등을 구분하여 총 6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아내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를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아내($\beta=-1.575, p<.01$)와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beta=-1.357, p<.05$)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beta=.283, p<.05$)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본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beta=.360,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표 3.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에서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모형의 구조 계수

경로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내갈등→아내결혼만족	-0.563	0.576	-0.301	-1.051	0.555	-0.565
아내 문제중심→아내결혼만족	0.212	0.511	0.094	-0.362	0.419	-0.160
남편갈등→아내 결혼만족	-1.575**	0.597	-0.882	-1.876**	0.608	-1.022
남편 문제중심→아내결혼만족	-0.925	0.535	-0.394	-0.678	0.440	-0.289
아내갈등*아내문제중심 →아내결혼만족	-0.171	0.149	-0.333	0.120	0.147	0.211
아내갈등*남편문제중심→아내결혼만족	0.279	0.143	0.562	0.095	0.148	0.174
남편갈등*남편문제중심→아내결혼만족	0.171	0.141	0.324	0.368*	0.151	0.655
남편갈등*아내문제중심→아내결혼만족	0.283*	0.141	0.564	0.191	0.143	0.338
남편갈등→남편결혼만족	-1.357*	0.563	-0.820	-1.918**	0.563	-1.128
남편 문제중심→남편결혼만족	0.138	0.505	0.064	-0.295	0.407	-0.136
아내갈등→남편결혼만족	-0.185	0.543	-0.107	-0.529	0.514	-0.307
아내문제중심→남편결혼만족	-0.473	0.482	-0.225	-0.486	0.388	-0.232
아내갈등*아내문제중심 →남편결혼만족	-0.126	0.141	-0.266	0.039	0.136	0.073
아내갈등*남편문제중심→남편결혼만족	0.115	0.135	0.250	0.052	0.137	0.103
남편갈등*남편문제중심→남편결혼만족	0.041	0.133	0.083	0.307*	0.140	0.590
남편갈등*아내문제중심→남편결혼만족	0.360**	0.133	0.774	0.204	0.132	0.391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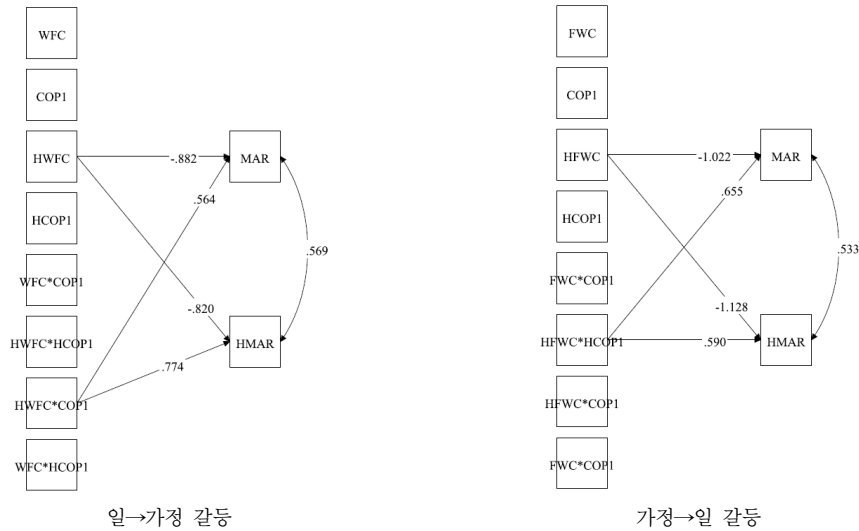


그림 1.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WFC:아내의 일→가정 갈등, FWC: 아내의 가정→일 갈등, COP1: 아내의 문제중심대처, MAR: 아내의 결혼만족, HWFC: 남편의 일→가정 갈등, HFWC: 남편의 가정→일 갈등 HCOP1: 남편의 문제중심대처, HMAR: 남편의 결혼만족)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이며 유의한 경로만 제시하였음.

로 나타나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와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가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일 방향의 갈등에서도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아내($\beta = -1.918, p < .01$)와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가($\beta = -1.918, p < .01$)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beta = -.368, p < .05$)와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문제중심대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eta = -.307, p < .05$),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와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편의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

아내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본 결과를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에서 가정 방향의 갈등의 경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높으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beta = -1.165, p < .01$),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eta = .271, p < .05$)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본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가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정에서 일 방향의 갈등에서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beta = -1.178, p < .05$),

표 4.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에서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 모형의 구조 계수

경로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내갈등→아내결혼만족	-0.639	0.496	-0.341	-1.178*	0.460	-0.634
아내지지추구→아내결혼만족	-0.222	0.544	-0.109	-0.635	0.407	-0.313
남편갈등→아내결혼만족	-0.813	0.448	-0.455	-1.324**	0.486	-0.722
남편지지추구→아내결혼만족	-0.212	0.519	-0.105	-0.532	0.382	-0.262
아내갈등*아내지지추구 →아내결혼만족	0.037	0.137	0.077	0.077	0.133	0.144
아내갈등*남편지지추구→아내결혼만족	0.093	0.141	0.191	0.196	0.127	0.371
남편갈등*남편지지추구→아내결혼만족	0.082	0.124	0.158	0.147	0.134	0.266
남편갈등*아내지지추구→아내결혼만족	0.111	0.130	0.222	0.237	0.137	0.442
남편갈등→남편결혼만족	-1.165**	0.416	-0.704	-1.300**	0.450	-0.764
남편지지추구→남편결혼만족	0.446	0.481	0.238	-0.049	0.354	-0.026
아내 갈등→남편결혼만족	0.032	0.460	0.019	-0.533	0.425	-0.309
아내지지추구→남편결혼만족	-0.585	0.505	-0.311	-0.474	0.377	-0.252
아내갈등*아내지지추구 →남편결혼만족	0.011	0.127	0.024	0.070	0.123	0.142
아내갈등*남편지지추구→남편결혼만족	-0.108	0.131	-0.239	0.032	0.118	0.064
남편갈등*남편지지추구→남편결혼만족	0.062	0.115	0.128	0.114	0.124	0.223
남편갈등*아내지지추구→남편결혼만족	0.271*	0.121	0.583	0.191	0.127	0.38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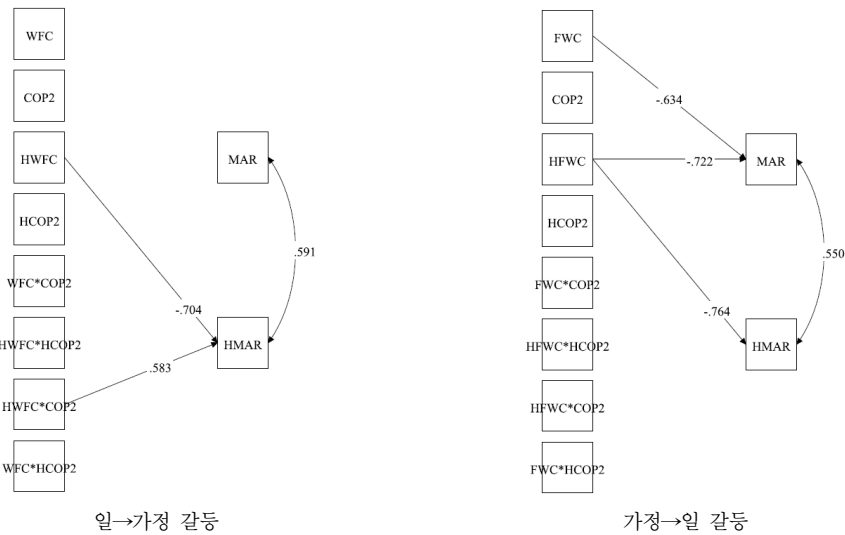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WFC: 아내의 일→가정 갈등, FWC: 아내의 가정→일 갈등, COP2: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 MAR: 아내의 결혼만족, HWFC: 남편의 일→가정 갈등, HFWC: 남편의 가정→일 갈등 HCOP2: 남편의 사회적 지지추구, HMAR: 남편의 결혼만족)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이며 유의한 경로만 제시하였음.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아내($\beta = -1.324, p < .01$)와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beta = -1.309, p < .01$)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일 방향에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에 대한 8개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화의 조절효과

아내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를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

다. 먼저 일에서 가정 방향의 갈등을 살펴보면,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beta = -1.114, p < .05$), 남편이 긍정화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197, p < .05$). 또한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beta = .344, p < .01$),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eta = .313, p < .01$) 남편의 일→가

표 5.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에서 긍정화의 조절효과 모형의 구조계수

경로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내갈등→아내결혼만족	-0.035	0.502	-0.018	-1.117*	0.542	-0.601
아내긍정화→아내결혼만족	-0.424	0.488	-0.214	-0.541	0.383	-0.273
남편갈등→아내결혼만족	-1.114*	0.496	-0.624	-0.818	0.530	-0.446
남편긍정화→아내결혼만족	0.636	0.526	0.299	0.148	0.409	0.069
아내갈등*아내긍정화 →아내결혼만족	0.019	0.126	0.034	0.278*	0.138	0.432
아내갈등*남편긍정화→아내결혼만족	-0.063	0.139	-0.132	0.013	0.139	0.024
남편갈등*남편긍정화→아내결혼만족	-0.015	0.123	-0.028	0.085	0.124	0.144
남편갈등*아내긍정화→아내결혼만족	0.344**	0.121	0.703	0.156	0.133	0.261
남편갈등→남편결혼만족	-0.642	0.468	-0.388	-0.328	0.493	-0.193
남편긍정화→남편결혼만족	1.197*	0.495	0.607	0.568	0.380	0.288
아내갈등→남편결혼만족	-0.150	0.473	-0.086	-1.184*	0.504	-0.687
아내긍정화→남편결혼만족	-0.765	0.460	-0.416	-0.682	0.356	-0.371
아내갈등*아내긍정화 →남편결혼만족	0.067	0.118	0.130	0.341**	0.128	0.572
아내갈등*남편긍정화→남편결혼만족	-0.070	0.131	-0.158	0.025	0.129	0.051
남편갈등*남편긍정화→남편결혼만족	-0.121	0.116	-0.241	-0.043	0.115	-0.078
남편갈등*아내긍정화→남편결혼만족	0.313**	0.114	0.691	0.033	0.123	0.06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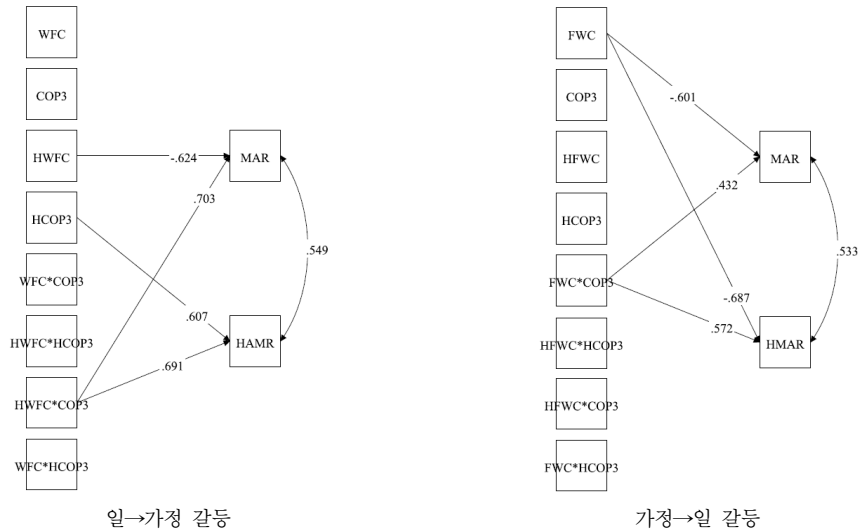


그림 3. 긍정화의 조절효과(좌: 일→가정 갈등, 우: 가정→일 갈등)(WFC: 아내의 일→가정 갈등, FWC: 아내의 가정→일 갈등, COP3: 아내의 긍정화, MAR: 아내의 결혼만족, HWFC: 남편의 일→가정 갈등, HFWC: 남편의 가정→일 갈등, HCOP2: 남편의 긍정화, HMAR: 남편의 결혼만족)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이며 유의한 경로만 제시하였음.

정 갈등이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의 긍정화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일 방향의 갈등 영역을 살펴보면, 이전의 패턴과는 다르게 아내의 가정→일 갈등은 남편($\beta = -1.184, p < .05$)과 아내 본인의 결혼만족($\beta = -1.117, p < .05$)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역시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 자신의 긍정화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beta = .278, p < .05$),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긍정화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beta = .341, p < .01$). 긍정화 대처의 경우 아내의 가정에서 일 방향의 갈등은 아내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

표 6. 대처의 조절효과

	WFC		FWC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결혼만족	-	아내 문제중심 아내 긍정화	아내 긍정화	남편 문제중심
남편 결혼만족	-	아내 문제중심 아내 지지추구 아내 긍정화	아내 긍정화	남편 문제중심

키며, 아내 자신이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가 이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이 부부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대처의 조절효과를 표 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앞서 확인된 일→가정, 가정→일 방향의 갈등 맥락에서 문제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상호작용 경로들에 대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아래에 각각 제시하였다. 세 가지 대처의 평균을 중

심으로 상(+1SD)과 하(-1SD)집단으로 나누고,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각 대처에 대한 상하위 집단의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려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제중심대처

일→가정 갈등. 문제중심대처의 경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그래프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그림 5의 좌측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내의 문제중심대처가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문제중심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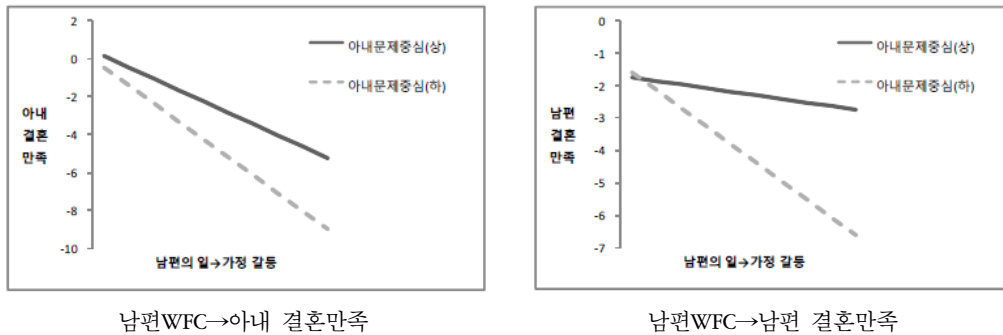


그림 4. 아내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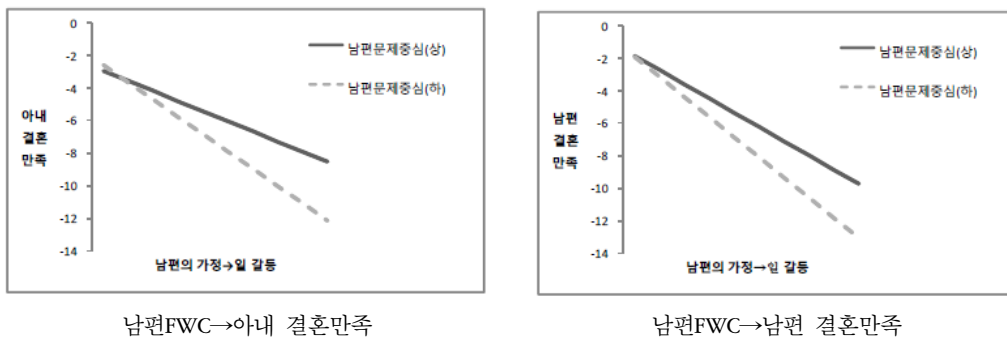


그림 5. 남편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가 낮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내의 문제중심대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그림 5의 우측 그래프)에서도 아내가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아 아내가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본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일 갈등. 가정에서 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경우,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6의 좌측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남편의 문제중심대처가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문제중심대처가 낮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편의 문제중심대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

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그림 5의 우측)에서도 본인이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아 남편이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는 본인의 가정→일 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추구

사회적 지지추구의 경우,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가 유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상호작용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아내가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하는 집단은 적게 하는 집단보다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울기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하는 것이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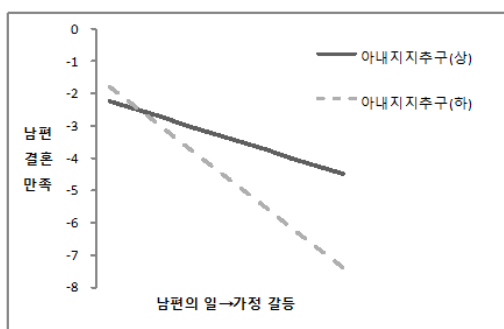


그림 6.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남편의 WFC→ 남편의 결혼만족)

긍정화

일→가정 갈등. 긍정화 대처의 경우 먼저, 일에서 가정방향의 갈등에서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데 있어 아내의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림 8의 좌측에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내가 긍정화를 많이 하는 집단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심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이 더 높아져 아내가 긍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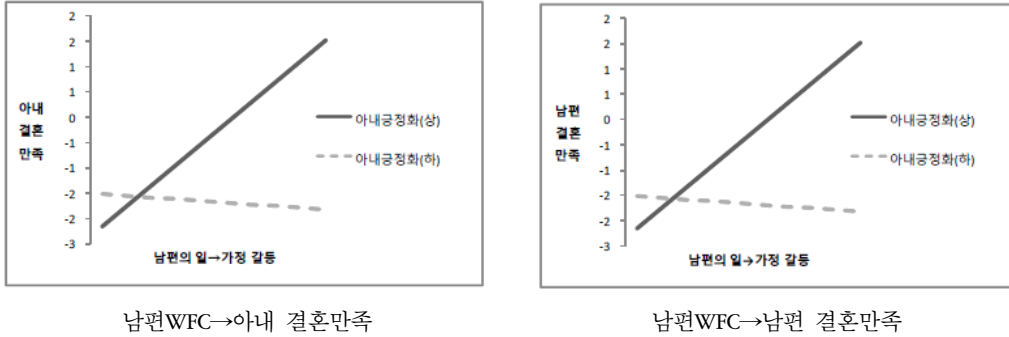


그림 7. 아내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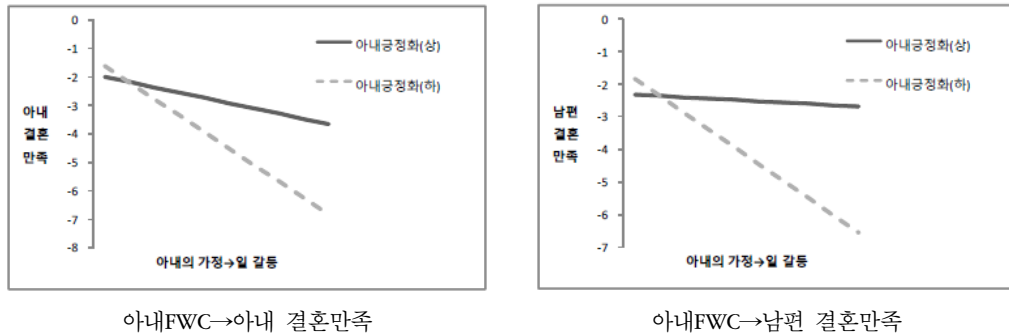


그림 8. 아내 긍정화대처의 조절효과

적게 하는 집단에 비해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우측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아내가 긍정화를 많이 하는 집단은 아내가 긍정화를 적게 하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높은 일→가정 갈등 수준에도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긍정화가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일 갈등. 가정에서 일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는 갈등의 경우,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데, 그림 9의 좌측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내의 긍정화가 높은 집단에서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긍정화 대처가 낮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긍정화 대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그림 9의 우측 그래프)에서도 아내가 긍정화 대처를 많이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작아 아내의 긍정화 대처는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각자가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세 가지 대처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모형을 일로 인해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으로 나누어 총 6개 모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제중심대처의 경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아내의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아내가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주었다. 가정→일 갈등에서는 남편의 가정→일 갈등이 본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남편 자신이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가정에서의 어려

움으로 직장 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지각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가 나빠지는데 이때 남편이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추구의 경우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 모두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추구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일로 인해 가정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느낄 때 남편의 결혼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때 아내가 사회적 지지추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부적인 영향력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긍정화 대처의 경우에는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에서 서로 다른 조절효과와 패턴이 나타났는데, 일→가정 갈등에서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편이 일로 인해 가정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내가 긍정화 대처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그래프에서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내가 긍정화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부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일 갈등의 경우 아내의 가정→일 갈등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긍정화 대처의 가정→일 갈등 모형에서는 아내의

갈등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아내가 사용하는 긍정화 대처가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각의 대처를 누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중심대처의 경우에는 ‘남편’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아내’가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보호요인이 되었다. ‘남편’이 가정일로 인해 직장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남편’이 사용하는 문제중심대처가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 지지추구의 경우 ‘남편’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내’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조절효과가 있었다. 긍정화의 경우에는 ‘남편’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내’의 긍정화 대처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아내’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도 역시 ‘아내’가 긍정화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 갈등은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맥락을 고려해야함은 물론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유용한 대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의 방향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편의 일→가정 갈등에서는 아내가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내의 일→가정 갈등은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어떠한 대처도 완화해주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하여 가정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아내의 대처가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아내는 일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신은 물론 남편이 어떠한 대처를 사용하더라도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아내가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부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대처가 부부관계에 완충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갈등의 방향성과 이를 경험하는 주체를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가정 갈등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며, 가정→일 갈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각각 가정과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Kelloway, Gottlieb, & Barham, 1999; Westman, Etzion, & Gortler, 2004; Williams & Alliger, 1994). 또한 일-가정 갈등을 부부 단위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문화일수록 남편의 갈등이 아내에게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덜 전통적일수록 일-가정 갈등이 부부 쌍방에 교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Westman, 2005). 또한 부부 쌍방에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남편의 경험이 아내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man, 2002). 이는 아내들은 가정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고 남성에 비해 공감 수준이 높아 중요한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자들은 아내의 경험에 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Wierda-Boer, Gerris, & Vermulst, 2009). 또한 아내가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과 부부의 대처를 넘어서는 사회

적인 자원과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부부관계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절효과의 대부분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처행동에서 성별 차이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와 남녀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의 수와 종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Tamres, Janicki & Helgeson, 2002)는 견해로 설명해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아내에게 더 많은 요구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은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아내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더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me, 2006; Matias & Fontaine, 2015).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문제중심과 긍정화 대처전략은 본인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가정 양립에서 아내의 건강한 대처 전략이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긍정화 대처의 강력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긍정화 대처는 워킹맘의 대처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되었던 대처 전략이다(노성숙 외, 2012; 우영지, 이기학, 2016; Clark, Michel, Early, & Baltes, 2014).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아내가 긍정화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관계의 질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긍정화 대처 역시 본인의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가정 갈등을 조절하거나, 아내의 결혼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화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당면한 스트레스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중심대처보다 긍정화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부부라는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직장에서의 과부하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내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아내의 긍정화 대처가 본인과 남편의 결혼만족을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내들의 경우 일-가정 갈등의 가장 큰 비중이 자녀 양육과 관련되기에(유성경 외, 2016; 전영자, 1997) 아내들에게 가정일로 인한 과부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일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내의 가정→일 갈등 역시 통제감을 갖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에 아내들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꿀 필요 없이 개인이 문제를 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 배운 “레슨”에 대한 성장과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Versey, 2015). 따라서 워킹맘들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긍정화 전략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의 즉각적인 요구를 관리하고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다(De Ridder & De Wit, 2006; Updegraff & Taylor, 2000).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긍정화 전략이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에 생산적인 전략이며, 역할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대처의 조절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부부는 일-가정 양립의 주체이자 가정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에 부부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일-가정 양립을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 연구에서 이들의 상호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의 세 가지 대처 유형만을 사용하여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보다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보다 부적응적인 대처 전략 역시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처 전략을 통하여 일-가정 갈등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처의 역할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각각에서 세 가지 대처의 조절효과를 6개의 연구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대처 혹은 다양한 대처 전략을 하나의 모형 안에 넣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만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화 라는 세 가지 대처 전략 각각이 일→가정, 가정→일 갈등에서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6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하나의 모형 안에 너무 많은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형 안에 다양한 대처를 함께 분석하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면 다양한 대처의 효과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 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신희, 양은주 (2012).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의 질에 따른 군집별 심리적 및 환경적 특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73-93.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정희, 강혜자, 한인순 (1987).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서애 송대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p53-63.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맞벌이 남성의

-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93-1216.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우영지, 이기학 (2016). 유자녀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 대처전략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73-194.
- 유성경, 임지숙, 손은영 (2016). 한국 맞벌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6), 475-498.
- 이은희, 최태산, 임은정 (2000).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탈진과의 관계: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1), 183-204.
- 이주일 (2003). 조직 장면에서의 분노, 불안, 우울 정서-정서 간 유발 상황과 대처방식의 차이 및 정서의 조절과 심리적 안녕, 직무효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9-58.
- 이주일, 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여성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1.
- 이주희, 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경구, 조신웅, 김교헌 (1992).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연구 I: 제어 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2(1), 425-435.
-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1), 339-355.
- 채화영, 이기영 (2013). 육아 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 가족 및 환경 연구, 51(5), 497-511.
- 최해연a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패턴과 심리적응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21.
- 최해연b (2013). 정서처리유형의 구분에 따른 정서경험과 대처방식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1-15.
- 최해연, 민경환 (2003).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의한 대처 척도 보완과 정서-중심적 대처 하위 차원의 기능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05-118.
- 통계청 (2019) 2019 일·가정 양립지표
- Aboim, S. (2007). Clivagens e continuidades de género face aos valores da vida familiar em Portugal e noutros países europeus. *Família e Género em Portugal e na Europa*, 35-91.
-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37.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mstad, F. T., Meier, L. L., Fasel, U., Elfering, A., & Semmer, N. K. (2011). A meta-analysis of work-family conflict and various outcom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cross-domain versus matching-domain rel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2), 151.
- Andreassi, J. K. (2011). What the person brings to the table: Personality, coping,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Family Issues*, 32(11), 1474-1499.
- Aryee, S., Luk, V., Leung, A., & Lo, S. (1999). Role stressors, interrole conflict,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pousal support and coping behaviors among employed parents in Hong Ko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59-278.
- Baltes, B. B., & Heydens-Gahir, H. A. (2003). Reduction of work-family conflict through the us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6), 1005.
- Bolger, N., &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3), 355-386.
- Brown, S. P., Westbrook, R. A., & Challagalla, G. (2005). Good cope, bad cope: adaptive and maladaptive coping strategies following a critical negative work ev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4), 792.
-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Conway, V. J., & Terry, D. J. (1992). Appraised controllability as a moderator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coping strategies: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1), 1-7.
- Clark, M. A., Michel, J. S., Early, R. J., & Baltes, B. B. (2014). Strategies for coping with work stressors and family stressor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4), 617-638.
- Crespi, I., & Fontaine, A. M. (2012).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fertility intentions in Europe. Family choices and child-birth challeng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2(1), 1-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y, A. L., & Livingstone, H. A. (2001). Chronic and acute stressors among military personnel: do coping styles buffer their negative impact on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4), 348.
- Denise, M. R., Dawn, S. C., & Joel, F. K. (2003). Coping with multiple dimensions of work-family conflict. *Personnel Review*, 32(3), 275-296.

- De Ridder, D. T., & De Wit, J. B. (2006). Self-regulation in health behavior: Concepts, theories, and central issues. *Self-regulation in health behavior*, 1-23.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745-77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ortes-Ferreira, L. I. N. A., Peiro, J. M., González Morales, M. G., & Martín, I. (2006). Work related stress and well being: The roles of direct action coping and palliative cop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4), 293-302.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
- Ganginis Del Pino, H. V. (2011). *Work-Family Experiences Among Employed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 Garcia, R. L., Kenny, D. A., & Ledermann, T. (2015). Moderation in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22(1), 8-2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 Haar, J. M. (2006). The downside of coping: Work-family conflict, employee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2(2), 146-159.
- Heszen-Niejodek, I. (1997). Coping style and its role in coping with stressful encounters. *European Psychologist*, 2(4), 342-351.
- Higgins, C. A., Duxbury, L. E., & Irving, R. H. (1992). Work-family conflict in the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1(1), 51-75.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pp. 150-153).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arcia, R. L., Kenny, D. A., & Ledermann, T. (2015). Moderation i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22(1), 8-29.
- Kelloway, E. K., Gottlieb, B. H., & Barham, L. (1999). The source, nature, and direction of work and family conflic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4), 337.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Guilford press.

- Kinnunen, U., Feldt, T., Geurts, S., & Pulkkinen, L. (2006). Types of work family interface: Well being correlates of negative and posi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2), 149-162.
- Kinnunen, U., & Mauno, S. (1998).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d women and men in Finland. *Human Relations*, 51(2), 157-17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pierre, L. M., & Allen, T. D. (2006). Work-supportive family, family-supportive supervision, use of organizational benefits, and problem-focused coping: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and employee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2), 169.
- Lee, H., & Mason, D. (2013). Optimism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aucasian, Korean, and African American older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4(12), 1084-1096.
- Matias, M., & Fontaine, A. M. (2015). Coping with work and family: How do dual earners interac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6(2), 212-222.
- Maume, D. J. (2006). Gender differences in restricting work efforts because of family responsibili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859-869.
- Mauno, S., Kinnunen, U., Rantanen, J., Feldt, T., & Rantanen, M. (2012). Relationships of work-family coping strategies with work-family conflict and enrichment: The roles of gender and parenting status. *Family science*, 3(2), 109-125.
- Nielsen, M. B., & Knardahl, S. (2014). Coping strategies: A prospective study of patterns, sta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42-150.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41-51.
- Paden, S. L., & Buehler, C. (1995). Coping with the Dual-Income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01-10.
- Parkinson, B., & Totterdell, P. (1999). Classifying affect-regulation strategies. *Cognition & Emotion*, 13(3), 277-303.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
- Penley, J. A., Tomaka, J., & Wiebe, J. S. (2002). The association of coping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5(6), 551-603.
- Perrone, K. M., & Worthington Jr, E. L. (2001). Factors influencing ratings of marital quality by individuals within dual-career marriages: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3.
- Powell, G. N., & Greenhaus, J. H. (2006). Managing incidents of work-family conflict: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Human Relations*, 59(9), 1179-1212.

- Rantanen, M., Mauno, S., Kinnunen, U., & Rantanen, J. (2011). Do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help or harm in the work-family conflict situation? Examining coping as a moder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8(1), 24.
- Rotondo, D. M., & Kincaid, J. F. (2008). Conflict, facilitation, and individual coping styles across the work and family domain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5), 484-506.
- Salovey, P., Bedell, B., Detweiler, J. B., & Mayer, J. D. (1999). *Coping intelligentl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ping process*. In C. R. Snyder (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 141-16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mech, A., & Drach-Zahavy, A. (2007). Strategies for coping with work-family conflict: The distinctiv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ideolog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1), 1.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Updegraff, J. A., & Taylor, S. E. (2000). From vulnerability to grow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In J. Harvey & E. Miller(Eds.) *Loss and Trauma: General and Close Relationship Perspectives* (pp.3-28). Philadelphia, PA: Brunner-Routledge.
- Versey, H. S. (2015). Managing work and family: Do control strategies help?. *Developmental psychology*, 51(11), 1672.
- Voydanoff, P. (2002). Linkages between the work-family interface and work, family, and individual outcome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138-164.
- Westman, M. (2005).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rossover research.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research perspective*, 241-260.
- Westman, M. (2002). *Gender asymmetry in crossover research*. In D. L. Nelson & R. J. Burke (Eds.), *Gender, work stress, and health* (p. 129-14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67-009>
- Westman, M., Etzion, D., & Gortler, E. (2004). The work-family interface and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4), 413.
- Wierda-Boer, H. H., Gerris, J. R., & Vermulst, A. A. (2009). Managing multiple roles: Personality, stress, and work-family interference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0(1), 6-19.
- Wiersma, U. J. (1994). A taxonomy of behavioral strategies for coping with work-home role conflict. *Human Relations*, 47(2), 211-221.
- Williams, K. J., & Alliger, G. M. (1994). Role stressors, mood spillover, and perceptions of work-family conflict in employed pare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4), 837-868.

논문 투고일 : 2020. 10. 12
 1 차 심사일 : 2020. 10. 15
 게재 확정일 : 2020. 11. 23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Moderating effect of three types of coping strategies

In-Hye L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of the three stress response (problem-centered treatment, pursui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thinking) in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between dual-earner couples on marriage satisfaction. To this end, 369 married couples (369 wives, 369 husbands) who raise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ere surveyed on stress coping (problem-centered, social support, and positive thinking), work-family conflicts, and marriage satisfaction. Based 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collected data verified six research models by distinguish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each of the three coping strategies from the direction of Work to Family conflict and Family to Work conflict. Interaction graphs were also presented to determine the pattern of significant buffering effects.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problem-oriented strategy of the wife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husband's WFC on the husband's own and wife's marriage satisfaction. It was also found that problem-oriented strategy that husband himself uses to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husband's FWC on his wife's marriage satisfaction. Second, the pursuit of social support confirme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husband's WFC on the husband's marriage satisfaction were mitigated by the pursuit of social support used by his wife. Third, in the case of positive thinking, the effect of the positive thinking on the husband's WFC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the husband and wife was shown, and the positive response effect of the wife's FWC conflict was also show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dual-earner couple, work-family conflict, coping strategies, APIM